

# 첫여름

늦선 여름이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여름을 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게다가 날씨가 이상해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가 찾아왔다. 비는 내렸다 하면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올 거라는 예언이 인터넷을 떠돌았고, 거기에 호응하듯 전염병은 더욱 번져갔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수도권 식당과 주점은 저녁 아홉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팬데믹 이후 첫번째 여름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 여름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생각날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서 엄마는 한 소녀와 함께 서 있다. 엄마의 표정은 환하지만, 소녀는 좀 찡그린 얼굴이다. 엄마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치고 있고, 소녀는 파란색 무늬가 들어간 접퍼에 바지 차림이다. 컬러가 유난히 선명해 엄마의 피부색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빨갳다. 두 사람 뒤에는 축서루가 서 있다.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은 시절의 엄마지만, 어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엄마와 나의 삶은 같은 시간으로 묶여 있으므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의 한 부분은 아주 오래전, 내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첫 여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주의 한 서점에서 연락이 온 건 사람들이 차츰 첫 여름에 적응해나갔던 칠월 초, 그러니까 내가 팔 년 만에 새 장편소설을 펴낸 직후였다. 서점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 속 목소리는 팬데믹으로 대면 행사를 해도 좋을지 염려되긴 하지만,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새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서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엔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다. 서로 조심해야 할 시기에 굳이 독자와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런 눈치를 챈지 서점 주인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올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비록 장례식장에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 명복을 빌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분을 여기 진주에서 뵈고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고향의 한 종교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했던 그해 봄의 일이었다. 다들 병원 출입은 고사하고 외출마저 꺼리고 있었으므로 부고를 널리 알릴 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 엄마의 당부도 있어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한 달 뒤 뒤늦게 부고 기사가 나왔다. 마치 엄마의 죽음이 코로나 시대의 비극 중 하나인 양 오도해서, 그 기사

에서 엄마는 1970년대에 반짝 활동하다 사라진, 잊혀진 여배우로 소개되어 있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봤다. 하지만 엄마에게서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내가 물었다.

“1977년이에요. 제가 열다섯 살 때. 맞죠, 1977년 이? 아니, 1978년인가?”

그렇다면 나보다는 열다섯 살은 나이가 많을, 그 서점 주인이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태어난 해를 묻고 있었다.

“살아 계실 때 꼭 한 번은 그분을 뵈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할 뿐이에요.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작가님이 아드님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새 책도 나왔다가에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주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그녀는 사진이라고 했다. 오래전, 진주에 온 엄마와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사진을 내게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진주까지 갈 것 없이 무엇이 고마운지 이유를 듣고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으면 될 일이었지만, 나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 들려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그 사진의 실물이 보고 싶었다. 어쩌면 엄마가 남겨놓은,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일지도 모르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나는 엄마에 대해 아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럴 줄 알았다면 살아 계셨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다. 그러나 여쭙봤어도 엄마가 당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젊은 시절 엄마가 서너편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사실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바 있다. 꽤 유명했다고 추켜세우는 사람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배우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만뒀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치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엄마는 그때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내게 들려주지 않았다.

내가 아는 엄마의 인생은 대구로 내려와 외갓집의 도움으로 의상실을 차린 이후부터 시작된다. 결코 평범한 삶이라고는 볼 수 없었지만 엄마는 미혼모 생활에 적응했고, 적어도 길으로는 늘 씩씩했다. 덕분에 나 역시 불행과는 거리가 먼 유년을 보냈다. 그 말은 어린 시절, 엄마가 비정상을 향한 사회의 질시로부터 나를 최대한 보호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내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지금 없다고 해서 결핍을 느낄 리는 없으니까. 내겐 아버지가 꼭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 상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자

기에게 없는 게 친구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행복할 아이는 더이상 행복할 수 없게 되니까.

언젠가 엄마의 의상실에서 낫살다고도, 낫익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다.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의 얼굴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기만 했다. 엄마는 그들에게 대면대면했다. 낫선 사람에게도 스스럼없이 대하던 평소의 태도와는 너무 달랐다.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달까. 반면 그들은 마치 어제 다녀간 사람들처럼 살기웠다. 한 여자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는 체를 했다. 여자는 뒤에 서 있는 남자들을 돌아보며 “벌써 이렇게나 컸네”라고 말했다. 그녀의 서울말은 마치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말하자면 혼선이 심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엄마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같았달까.

엄마와 나만의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사춘기가 시작됐다. 엄마의 말에 어깃장을 놓고, 흡연이나 음주처럼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하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는 여러 의문이 뿔뿔였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일까? 죽고 난 뒤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태어난 것이며, 또 왜 태어난 것일까? 그 의문들은 엄마가 공들여 가꾼 만족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뒤흔드는 의문 하나가 나를 사로잡았다. 그날 찾아온 남자 중에 나의 아버지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나 나는 그 의문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꼭꼭 묻어두는 것으로 우리의 우주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작업실 책상 앞으로 돌아온 나는, 오월 말이 되어서야 오랫동안 써온 장편소설을 마침내 탈고할 수 있었다. 그제야 엄마가 살던 대구 집을 정리할 시간이 생겼다. 대학에 입학한 내가 집을 떠난 뒤로 엄마는 지속적으로 살림을 줄여왔다. 집에 다니며 참선을 배우고 요가를 시작한 것도 그즈음의 일이었다. 주말에 집에 내려가면 식탁 위에는 법정스님이나 명상서적이 놓여 있곤 했다. 내가 취직하면 엄마는 이 생에서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다. 나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었다. 그럴 때면 내가 엄마에게 굴레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만보다는 불안이 내겐 더 컸다. 저러다 진짜 절이라도 들어가면 어쩌나 싶었으니까. 엄마 말대로 내가 취직한 뒤로 엄마의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간소해졌다. 옷도 몇 벌, 식기도 몇 벌. 물건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더 넓어졌다고 엄마는 말했지만 내가 알던 엄마는 조금씩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나는 나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각자의 삶을 이십여 년 살아냈다. 그렇기에 엄마에 대해, 엄마의 내밀한 삶에 대해 내가 아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간소한 살림살이임에도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나는 중얼거렸다. 낮설지만 낯익은 방문객들이 엄마의 의상실을 다녀가고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들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나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 몇 번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서 생활한 뒤로 한 번쯤은 내게 그를 만난 적이 있는나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엄마는 묻지 않았다. 그러자,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갑자기 나는 서운해졌다. 내가 거의 손떨 것도 없이 낄낄 것만 남겨놓고 썩다 치워놓은 집을 보니 더욱 그랬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행사가 끝난 뒤, 서점 주인은 나를 시장 골목 초입에 있는 제일옥이라는 국밥집으로 안내했다. 육십 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라고 했다. “이모는 몰랐지만, 저는 금방 그분을 알아봤어요”라며 서점 주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건 국밥을 다 먹고 난 뒤였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뒤가 쪽 친척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일할 때가 배경인지라 아직 어린 소녀에게 여관 일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갔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어쩌다 쉬는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이었다. 그 시간 동안은 힘든 청소나 빨래며, 투숙객들의 불쾌한 농지거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그녀 앞에 스크린 속에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극장에서 본 배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먼 친척인 여관 여주인—그녀는 이모라고 불렀다—은 오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손님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테니 잘 감시하라고 말했다. 딱 보면 안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프린트에 앉은 이모가 투숙객들이 외부로 전화할 때마다 그 내용을 엿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모가 장담한 대로 밤이 될 때까지 그 손님의 객실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홉시가 지날 무렵, 이모는 그녀에게 손님 방을 찾아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라고 시켰다. 그녀는 손님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다고 이모에게 말했다. “그리고 또?” 이모가 물었다.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러고 보니 머리맡에 약봉지 같은 것이……”라고 그녀가 말하자, 이모가 소리쳤다. “그렇다니깐! 딱 보면 안다니까!” 그리고 여관 주인은 입을 가리고 소리를 죽이며 당장 술상을 차려 그 방에 서비스라며 넣어주라고 말했다.

“이쯤이면 그 남자가 안 오는 게 확실하니까, 네가 가서 그 여자한테 어떻게든 술을 먹여. 먹이라구. 그리

고 무엇이든 말하게 해. 다 토해내게 해. 질질 짜게 만들든 옷게 만들든 어쨌든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하란 말이야. 오늘 밤만 넘기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모가 말했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배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술이며 안주를 챙겨 객실로 찾아가 문을 두들겼다.

그뒤의 이야기는 이모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한 시간쯤 뒤, 영영 우는 소리가 들려 프린트에 있던 이모가 옹다구나 싶어 객실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뭔가 좀 이상했다. 이모가 문을 두들겨 안으로 들어가보니 여자 손님은 멀쩡했고 눈물범벅이 된 건 그녀였다고. “아니, 손님은 술을 하나도 안 잡수었소? 어찌 그리 멀쩡해요?” 자신이 살아온 내력이며 신세한탄을 늘어놓는 그녀를 민망한 듯 잡아 일으키며 이모가 말하자, “애한테도 애기했지만, 저는 지금 술을 마시면 안 돼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날 밤, 여관 주인이 걱정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손님은 이모에게 허락을 받은 뒤 술로 머리가 아픈 그녀를 데리고 밥집, 그러니까 서점 주인과 내가 저녁을 먹는 제일옥에 갔다고 했다. 국밥을 시켜 먹으며 손님이 물었다.

“어제는 왜 술상을 봐온 거니?”

머리를 박고 국물을 떠먹던 그녀가 말했다.

“죄송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잘못된 건 나지. 술상을 봐오길래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 왜 그랬어?”

손님의 말에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남의 통화를 마음대로 엿듣는 이모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술을 먹이라고 했다는 말은 웬지 할 수가 없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 언니 알아요. 영화에서 봤어요. 그, 청춘의……”

그러자 손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너, 나 알아? 그 영화를 봤어?”

“예. 봤어요, 언니. 언니처럼 예쁘고 멋진 사람이 도 대체 왜……”

이번에는 손님의 낯빛이 금세 어두워졌다고 한다.

“그러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다들 아이를 때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런 말이 아니라 도대체 왜 자살을 하느냐는 것이었지만, 역시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옥희라고 했니? 옥희야. 어젯밤에 너 방에서 나가고 밤새 꿈꿈이 생각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야. 과거는 다 잊어버려.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구를 만나 사랑했고,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는 다 잊어버려. 대신에 오로지 미래만을 생각하기로 해. 이제까지는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 손님이 옥희를 가만히 쳐다봤다.

“옥희한테는 뭐가 좋은 생각이니?”

그때까지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나한테는 이런 게 좋은 생각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져. 넌 어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니?”

“글쎄요. 저는 다시 학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녀가 간신히 말했다.

“그래, 그런 거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 좋은 기분만은 우리 잃지 말자고 우리 오늘 약속하자.”

그렇게 말하며 손님, 그러니까 엄마가 그녀를 뺀히 쳐다봤다.

“네. 지금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긴 하지만……”

그녀가 찡그리며 말했다고, 엄마는 웃었다.

“그날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맹세하긴 했지만 그 맹세는 깨진 지 오래고……”라고 말하며 그녀는 내게 소주잔을 내밀었다. 벌써 두 병째였다. 그녀는 그 기분 좋은 생각이 몇 년 뒤 현실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엄마가 떠올랐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엄마에게 전하지 못한 사진이 떠올랐다. 며칠 뒤, 축석루 앞 사진사를 찾아가 받은 사진. 영화에서 본 배우와 짝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 그뒤로 엄마는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않았기에 그 사진을 보낼 방법을 그녀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그녀는 약처럼 공부해 대학까지 마치고 학교 선생님이로 일했으며, 퇴직한 뒤에는 평생 꿈꾼 대로 작은 서점을 차렸다. 우리 모두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인생 역시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마치 우리의 첫 여름처럼. 그럴 때마다 그녀가 생각한 건 그 아침의 일들이라고 한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만지며 국밥을 먹은 일, 국밥을 먹으며 서로 얘기한 일, 그리고 진주에 왔으니 축석루는 보고 가야겠다는 엄마의 말에 앞장서서 길을 안내한 일. 언덕을 오르는 동안, 그녀와 엄마 쪽으로 바람이 불어왔는데, 그 느낌이 어찌 일처럼 생생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마치 지금도 그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처럼 눈을 감더니 그녀는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아져요.”(김연수@진주문고, 221203)

# 카더가든(with 오준) - 긴 겨울